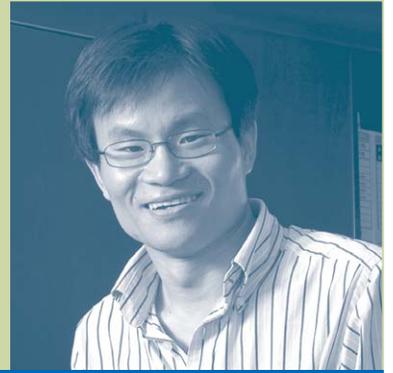


# 그림co.kr 도메인은 없어지는 겁니까?



(주)후이즈  
대표이사  
이 청 종

‘abc.kr’ 형태의 .kr 도메인 등록이 개시된 이후 많은 도메인 사용자들이 묻는 질문이다. 기존의 ‘.co.kr’ 도메인과는 별도로 새롭게 ‘.kr’ 도메인이 신설되는 것이어서 기존 도메인의 사용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co.kr’이 한국 대표 도메인의 지위를 계속 지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본의 경우, 2001년 ‘.jp’ 도입 개시 후 2005년 조사 결과, ‘.co.jp’ 등 3단계 도메인과 2단계 ‘.jp’ 도메인 전체 중, 2단계 ‘.jp’가 절반을 훌쩍 넘어 56%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 역시 현재의 ‘.kr’ 등록 추이를 보면, ‘.kr’이 빠른 시간 내에 ‘.co.kr’ 수를 넘어, 새롭게 국내 대표 도메인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그럼, ‘.co.kr’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kr’을 추가 등록할 필요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드시 추가 등록할 필요가 있다. 특히, ‘.com’이나 ‘.net’이 아니라, ‘.co.kr’을 사용하고 있다면, 더욱 ‘.kr’ 확보가 중요하다. ‘abc.co.kr’ 도메인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abc.kr’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abc.kr’은 누구나 등록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애써 모은 고객의 트래픽을 빼앗아갈 수도 있으며, 엉뚱한 웹사이트를 운영해서 ‘abc’ 브랜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kr’ 도메인의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그 피해는 더욱 커진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도메인에 대한 인식과 관리체계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후이즈는 1999년 국내 최초 도메인 전문 사이트인 [whois.co.kr] 사이트를 오픈하고, 2001년부터는 기업을 위한 전문적인 도메인관리시스템인 ‘DMS(Domain Management System) : [WhoisDMS.com]’을 국내 최초로 공급해오고 있다.

삼성, LG, 두산, 포스코, 신한은행, KBS, ING생명 등의 국내외 유수의 대표 기업들과 기관들의 경우 도메인을 기업의 중요한 브랜드 자산으로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신규 도메인의 확보와 관리, 그리고 미처 확보하지 못한 도메인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분쟁시스템 및 구매 프로세스 진행을 통해 도메인 확보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 자산으로서의 도메인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 관리로 인해, 도메인이 낙장되어 사이트가 심지어 몇 개월씩이나 다운되는 큰 피해를 보고서야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를 문의해 오는 경우가 많다. 고객들이나 주주들은 잠깐 정도는 서버다운이겠거니 생각하겠지만 몇 일, 몇 개월 동안 웹사이트가 뜨지 않는다면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이미지 실추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구글은 ‘google.com’ 외에도 ‘o’가 3개인 ‘google.com’까지 확보하고 있다. 브랜드 관리에 철저한 기업들의 경우, 정확한 도메인명은 물론 자주 오타가 나는 도메인명까지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다. ‘.com’, ‘.net’, ‘.kr’, ‘.co.kr’ 등 주요 도메인들을 종류별로 모두 확보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abc’라는 브랜드를 기억하는 고객이 웹사이트를 찾아가려면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abc.com’이나 ‘abc.co.kr’을 주소창에 쳐 보기 마련이다. ‘.kr’ 사용이 늘수록 ‘abc.kr’을 치는 고객도 늘어나게 된다.

고객이 오는 길을 하나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도메인 등록 비용은 보통 1년에 몇 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도메인을 확보하지 않아 생기는 피해의 규모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kr’ 도메인은 수년간 시장에 새로 나온 ‘.info’, ‘.name’ 등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여타 도메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해나갈 기업이라면 반드시 확보해야 할 대한민국의 대표 도메인이다. 주요 브랜드를 현재 ‘.co.kr’이나 ‘.com’으로 사용중인 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확보하도록 하자.

↓  
회사 도메인을 ‘.com’  
이나 ‘.co.kr’으로 사용  
중인 기업이라면 ‘.kr’  
도메인을 지금 바로 확  
보해야 한다.